

추아 그걸 왜 눌렀어!

춘배 오 들어가진다! 빨리 어떻게 좀 해봐!

춘배, 허둥지둥 머리 위 구루프를 풀려고 한다.

추아 급하게 자신의 손으로 구루프를 마구 감싼다.

줌 대기 화면의 로딩바가 빙글빙글 돈다.

S#6 안방/ 낮/ 1

줌 화면 속으로 보이는 춘배의 모습. 머리가 풍성하게 차있다.

추아, 춘배와 등을 맞대고 있다.

머리를 뒤로 넘겨 춘배의 비어있는 머리를 채우고 있다.

미숙 (화면 밖 종이를 바라보며) 67년생 말띠 춘배씨? 춤추신다고.

춘배 (격하게 인사를 하며) 어잇! 처음 뵙겠습니다!

추아, 춘배를 따라가지 못해 머리가 살짝 들린다.

미숙, 종이를 보느라 다행히 보지 못한다.

추아, 급하게 춘배의 등에 다시 바짝 기댄다.

춘배 (낮은 목소리로)아름다우십니다.

미숙 (말을 끊고) 실례지만... 100세 시대인데 혹시 다시 일하실 생각 있으시죠?

춘배 고럼요! 저.. 그. 프로 댄서 될 겁니다!

미숙 (종이만 바라보며) 아... 좋네요

종이 위로 엑스 표시를 크게 그리는듯 보인다.

미숙 (춘배 화면 속 집을 쳐다보며) 실례지만. 자가지죠?

추아, 들킬까 몸을 더 아래로 붙여 숨는다.

춘배 예?

미숙 아. 집이요. 사신 거죠?

춘배 아 고럼요..! 크진 않은데 가끔 딸이랑 춤추긴 와따입니다!

미숙 어우~ 좋네요. (혼잣말 하며) 집도 없으면 안되지.

미숙, 크게 동그라미를 친다. 이어서 종이를 보고 무언가 계속 적는다.

추아, 팔로 춘배를 친다.

추아 (속삭이며) 저 여자 뭐 적어?

춘배 (속삭이며) 시끄러..!

춘배, 질문이 떠올랐는지 몸을 노트북 쪽으로 당긴다.

추아, 급하게 아빠를 쫓아 머리카락을 움직인다.

춘배 (낮은 목소리로) 미숙씨 춤 좋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미숙 어머. 좋아하죠~

춘배 역시... 언제 한번... 쉼 위 댄스?

춘배, 어색하게 화면에 손을 뺀다.

추아, 춘배의 몸을 따라 머리카락을 앞으로 움직인다.

미숙 (깔깔깔 크게 웃으며) 너무 웃기시다~ 너무 좋죠~

미숙, 종이에 큰 동그라미를 체크한다.

춘배, 활짝 웃는다.

뽕짝 카세트를 틀기 위해 화면 밖 책상 쪽으로 이동한다.

추아, 멀어지는 아빠의 몸에 맞춰 위태롭게 몸을 움직인다.

미숙 V.O 전. 제에즈~ 추는데 춘배씨는 뭐 추세요?

미숙, 몸을 노트북 쪽으로 잔뜩 붙어 춘배의 답변을 기다린다.

춘배, 카세트를 누른다. 노래가 나오는 찰나, 추아가 바로 카세트를 끈다.

추아 (속삭이며) 안돼!

춘배 고개를 돌려 추아를 바라본다.

미숙 춘배씨?

추아, 춘배의 허리를 밀어서 다시 화면에 넣는다.

춘배, 밀려서 엉성한 자세로 들어온다.

카세트 쪽에 눈을 때지 못한다.

추아 춘배를 꼬집는다.

춘배 (아픔을 참으며) 그...! 재즈가 와따쥬!

미숙 (종이에 체크하며) 어머 저두요~ 재즈가 왜 좋으세요?

춘배 (얼버무리며) 그나마 재즈가 짜릿하더라구요!

춘배에 말에 미숙이 깔깔깔 웃는다. 춘배도 따라 웃는다.

춘배가 웃자, 머리가 살짝 움직이면서 머리카락이 움직인다.

추아도 피식 웃는다.

미숙 (동그라미를 치며) 언제 같이 댄스 하면 되겠네요.

(종이를 훑어보며) 맞다. 딸이 있으시던데 독립 했죠?

춘배 아뇨? 안했는데?

미숙, 당황한듯 메모를 훑는다.

추아, 춘배의 옆구리를 살짝 친다.

추아 (속삭이며) 그걸 뭐하러 말해!

미숙 에이~ 나이가 몇인데 나가 살아야지. (종이에 체크를 하며)

미숙, 종이에 엑스표를 친다.

미숙 엄마네 간다는 소린 없어요?

추아 (속삭이며) 하... 나간다고 해. 그래야...

춘배 에이, 엄마보단 같이 살던 아빠가 편하죠.

미숙 딸이 그래요?

춘배,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한다.

추아, 손에 힘을줘 앉아있는 의자를 꼭잡는다.

정적이 흐른다.

춘배 네.

추아 (몸 돌려 일어나며) 아빠!

춘배 깜짝 놀란다.

추아의 머리카락이 사라지자 춘배의 손으로 머리를 가린다.

미숙, 구루프가 말린 춘배와 그 뒤에 추아를 발견하곤 깜짝 놀란다.

춘배 (해명하듯) 아이고 이쪽은 울 딸인데!

미숙 (깜짝 놀라) 어머! 제가 다음 사람이 있어서.. 고생하셨어요!

줌 화면이 꺼진다. 춘배 추아를 보지 않고 꺼진 화면만 본다.

추아, 한숨을 크게 쉰다.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향한다.

문 닫히는 소리가 난다.

춘배 (닫힌 문을 바라보며) 추아야.